

축 사

‘석굴암 백년의 빛’ 특별전을 통해 석굴암의 지난 백년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뜻 깊은 전시를 중단의 정보박물관을 대표하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과 중단 산하의 동국대학교가 뜻을 함께 하여 자리를 마련하는 첫 전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굴암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동시에 1700년의 우리 불교 역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성보(聖寶) 중의 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석굴암이 1995년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우리 민족만의 불교문화재가 아닌 세계인이 가꾸어 나가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그 위상을 일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 주요사진과 유물, 도서자료 등은 우리들 인식 속의 석굴암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 가슴마다 석굴암 본연의 형상이 뚜렷이 아로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서기 751년부터 시작되어 774년에 완공될 때까지 23년에 걸친 석굴암 불사는 그 당시 신라의 모든 지식과 원력이 모아진 결정체입니다.

시절인연에 따라 제국주의의 전리품이자 약탈대상이 되기도 하고, 국보로 지정되고 또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등 영욕을 거쳤지만 13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지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석굴암을 빛나게 하고 오늘날까지 보존한 것은 조성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스님들과 신도들의 신심이었습니다. 누구든 석굴암을 참배하면서 느끼는 경외감은 단순한 미술작품으로는 가질 수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오늘 이 특별전을 통해 석굴암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발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귀중한 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동국대학교 이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귀중한 자료

를 아낌없이 내어준 석굴암미술연구소장 성낙주님과 사진작가 김한용, 안장
헌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힘써주
신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스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불교문화재의 전시를 통해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광명과
자비가 전달될 수 있도록 뜻있는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1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